

2018

가을 제64권 3호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쿠바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성경을 보내는 일,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한글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한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아직도 성경을 받지 못한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할 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150여 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미자립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www.bskorea.or.kr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해요!
- 04 커버스토리_쿠바
쿠바 복음화, 성경 보급을 통해 가능합니다.
- 08 2018 성경보내기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99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10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재해와 재난 가운데 있는 지구촌 이웃들
- 12 현장 이야기
미얀마 소수 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을 진행하며...
- 14 말씀을 만나다
가브리엘
- 16 성경을 받은 사람들
아이티 어린이 그림성경 반포 현장을 가다
- 20 나의 삶을 바꾼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 22 후원교회
말씀을 보내는 것만큼 힘있는 선교는 없습니다!
- 24 페이스북에서 만나요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부담),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55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8년 9월 30일
· 인쇄인 : (주)타라그래픽스
· 인쇄처 : (주)타라그래픽스
· 편 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접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 119:103)

케냐 마사이 부족 낸시(12살)는
한 달 전에 성경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5km 떨어진 학교를 매일 걸어 다니면
힘들 법도 한데,
낸시의 손에는 항상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매일 가족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낸시,
12살 소녀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쿠바 복음화, 성경 보급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증 성경을 받은 쿠바 교인들

위치



중남 아메리카 카리브해 서부 약 1,100만 명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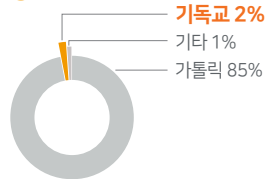


언어



스페인어

종교



2018년 6월 2일 토요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한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 쿠바 성경 100만 부 반포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정부 기관 관계자와 교회 대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협력한 자매성서공회들이 함께 모였다. 지난 2013년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약 5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Cuba



쿠바 성경 100만 부 반포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한 자매성서공회들

공산 혁명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쿠바 교회

쿠바는 아메리카 대륙의 최초의 공산국가로 “카리브 해에 떠있는 붉은 섬”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첫 선교가 시작된 1890년 이래 쿠바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공산 혁명이 일어난 이후 70%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현지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

현재 쿠바의 개신교 인구는 공식적으로는 8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약 2,500여 개의 교회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순회하며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오늘날 쿠바는 종교의 자유는 허락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새로운 교회 건축 등이 금지되어 있다.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도 없어 모든 성경의 보급은 외국성서공회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난 10년 동안 쿠바교회는 3배 이상 성장하였지만 그 성장세에 비해 온전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베르타는 낡은 성경이지만 어디를 가든 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

감격스러운 성경 100만 부 반포 기념 현장

이와 같은 쿠바 현지 성경 보급의 어려움을 접한 세계 곳곳에서 쿠바 교회를 위해 정성을 모아주었다. 이를 통해 스페인어 성경이 제작되어 쿠바 열 여섯개 주에 설립된 반포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성경이 전달되었다. 성경 100만 부 반포 기념식은 단순히 쿠바성서위원회의 행사가 아닌 쿠바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었다.

쿠바성서위원회의 총무인 알라인 몬타뇨 목사는 이 행사의 감격을 전하며 “쿠바는 지금 축제입니다. 성경 100만 부 반포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쿠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쿠바의 성경사역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 일에 협력해 주신 대한성서공회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라며 이 일에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준 후원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쿠바 현지에서 기증 성경을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미국성서공회 데이비드 아이사이스도 “쿠바성서위원회 분들과 쿠바 곳곳을 방문하며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읽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첫 성경을 위해 40년 동안 기도해오던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마치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것처럼 끌어안고 우는 성도도 보았습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깨닫게 됩니다.”라고 현장의 감격을 전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 기증한 성경을 들고 있는 쿠바성서위원회 총무 알라인 몬타뇨 목사

성경 보급을 통해 더욱 성장할 쿠바 교회

100만 부의 성경이 쿠바에 전해졌지만, 쿠바교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다리고 있다. 가정교회에 찾아오는 새신자들과 이들을 인도하는 목회자,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기다리고 있다. 쿠바성서위원회 알라인 총무는 “이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성경이 쿠바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작점입니다.”라고 성경이 더욱 필요함을 말했다.



교회학교에서 한 권의 성경을 나눠 보는 어린이들

쿠바뿐 아니라 동유럽 등에는 오랜 공산권의 영향으로 성경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성서교회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되새기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오늘도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방문하는 곳마다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될 영혼들을 기대하며 성경을 후원하는 이 사역에 후원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 드린다.🌍



후원문의

매월 1만 원이면 2명의 쿠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쿠바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쿠바에 보내는 성경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여러분의 후원으로 99개 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짧은 글씨 - 금년에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18.8.31 기준)



아프리카 지역 41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상투메,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중동 지역 26개국

걸프, 그리스,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랍-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터키,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개국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미주 지역 22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안틸레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동카리브,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재해와 재난 가운데 있는 지구촌 이웃들

○ 인도 (홍수)



인도 케릴라 주에 일어난 대홍수로 인해 4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수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식수는 물론 전기, 통신망도 끊겨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시로 구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 모든 요청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홍수로 도로상황이 마비되어 이 지역 인도성서공회의 사역 또한 중단이 되었고, 직원들 중에도 산사태와 침수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성서사업도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지진)

8월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으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도 구조와 재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진 이들과 지금도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성서공회가 보급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과테말라 (화산 폭발)



지난 6월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폭발하여 75명의 사상자와 2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아직도 수천 명이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과테말라성서공회는 재해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 말아요, 과테말라”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소수 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을 진행하며...

- 파오어 성경 번역 컨설팅 -

조지윤(대한성서공회 번역실 부장)

2018년 8월 6일~14일에, 미얀마 파오어 성경 번역자인 쿤 바 산 목사가 방한하여, 본 공회 번역실에서는 파오어 성경 읍기부터 이사야까지의 번역을 점검하였다.

지난해 파오어 구약 기초 번역은 완료되었고, 현재 번역 검토 위원들이 <파오어 신약전서>(2009년)와 구약 번역을 비교해 나가며 신약을 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본 공회 번역실에서 컨설팅했던 것이, 현재 신약 번역 개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파오어 읍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파오어 성경 번역은 영어 역본인 <복음번역>(Good News Translation)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을 한다. 그러나 번역 컨설팅을 하다보면 <복음번역>을 그대로 따라 번역하기 힘든 부분들이 발견된다. 그런 경우에는 파오어 성경 독자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도록 컨설팅을 한다.

읍기 4장 1절의 경우에 <복음번역>에서는, 말하는 이를 “엘리바스”(Eliphaz)라고 소제목 형태로 읍기고, 1~2절을

묶어서 “읍, 내가 말하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나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역본들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따라 1절에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라고 하고, 2절을 분리시켜 번역한다. 이러한 경우는 읍기 본문 전체에서 나타난다.

본래 파오어에는 문장 부호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 기능을 독특한 어휘들이 대신한다. 물음표의 경우에는 문장 부호가 아니라, “흥”이라는 글자를 덧붙인 후 올려서 읽는다. 느낌표의 경우에는 “꼬웨이”라는 어휘를 문장 끝에 붙여 그 기능을 대신한다. 쉼표는 |, 마침표는 ||로 표기한다. 따옴표의 경우에는 “~가 말한다”, “~가 대답한다” 등으로 인용이 시작되는 것을 표기하는데, <파오어 신약전서>를 번역하는 동안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어 따옴표를 문장 부호로 넣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따옴표보다는 “말한다” 또는 “대답한다” 등의 동사로 인용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파오어 성경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

로 파오어 읍기에서도, <복음번역>과는 달리 말하는 이를 본문에서 명확하게 번역하는 쪽으로 컨설팅을 하였다.

이외에도 “변호”와 “보호”, “전투”와 “전쟁”, “정의”와 “공의” 중 어떤 어휘를 선택하여 번역해야 할지가 문제가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문맥을 이해하며 번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설 성경 등을 소개하며 컨설팅을 하였다.

“용”인가, “바다 뱀”인가, “바다 괴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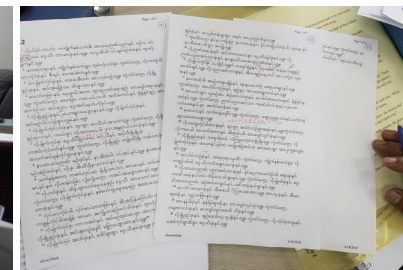
파오어 부족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하게 번역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히브리어 “탄닌”을 다른 역본들에서 “용”이나 “바다 뱀”으로 번역하는 경우와 달리, “바다 괴물”(읍 7:12 등)로 번역하였다. 파오 부족 사람들에게 “용”이나 “뱀”은 부처를 보호하는 신비롭고 긍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역본들에서 “리위야단”, “베헤못”이라고 음역한 부분도 파오어 성경에서는 “리위야단 괴물”, “베헤못 괴물”이라고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그러나 시편 23편 1절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는 파오 부족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었다. 파오 부족 사람들에게 “목자”는 단기간 한 번씩 고용되어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의 목자시니”는 “내가 고용한 목자이니”로 읽혀져서 “여호와/주님”과 연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파오어 성경에서는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이시니”라고 첨가 번역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독자 스스로를 양의 위치에 두고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파오어 부족 전체 인구 150만 명 중 99%가 불교인이고, 기독교인은 1% 미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파오어 성경전서>가 발간된다면 파오 부족 전체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2020년 <파오어 성경전서> 첫 번역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파오 부족 교회 성도들은, 후원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였다.



본 공회 번역실에서 미얀마 파오어 성경 번역 컨설팅



번역 컨설팅을 통해 수정된 파오어 성경 본문들

가브리엘

히브리어: גַּבְרִיֵּאל

뜻: '하나님의 강한 자' 또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가브리엘은 미가엘을 제외하고는 성서에서 이름을 들어 지칭하는 유일한 천상적 존재이다. 후기의 문서들에는 라파엘과 우리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브리엘은 구약성서에서는 <다니엘>에 나타나며 신약성서에서는 <누가복음>에 나타난다.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 곧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외뿔을 가진 숫양에게 패배당하는 장면이 나타난 환상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사람처럼 보이는 한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목 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가 본 것을 설명해 주어라." (단 8:16하) 다니엘은 매우 놀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알려 주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은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굴복당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은 결국에 그의 네 후계자들 사이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환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 숫염소의 외뿔은 부러지고 이어서 새로운 네 개의 뿔이 돋아날 것이다.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천사가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 왔다(단 9:20-21). 그는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이 70년간 폐허 더미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풀이해 주었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메시아의 왕국이 오기까지 70 이레 곧 490년이 지날 것이다. 종말에 대한 다니엘의 꿈을 풀이해 주려고 온 '사람의 모습을 띤'(단 10:18) 그 존재 또한 가브리엘이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 환상을 본 사람에게 환상을 풀이해 주기 위하여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구약성서에서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서처럼 하늘의 사자에게 이름을 붙여 지칭한 것은 대단히 드문 현상이다.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이 두 번 나

타하는데 그때마다 아들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맨 처음에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의례를 집행하는,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이 두 경우 모두 천사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이름을 말해 준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은 (세례) 요한이라 부르고, 마리아의 아들은 예수라 부를 것이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했다. '나는 가브리엘이요,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인데, 당신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소.' (눅 1:19) 누가의 이야기는 이전에 성서에 나온 천사 현현 이야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스마엘과 삼손의 출생도 천사가 알려 주었다. 그렇지만 그때는 천사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창세기와 포로기 이전의 성서의 문서들에서 천사들은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 가운데 가시적인 것으로 형상화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다. 포로기 이후 시대에 생긴 <다니엘>과 같은 유대교적 문서들에서는 천사들이 이름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들로 등장한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전승은 일곱 천사 또는 대천사들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들은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

의 임재 곁에 머물고 있는 존재들이다. 성서 정경에 채택되지 않은 후대 문서인 '에녹 1, 2서'에서는 가브리엘이 그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그 밖의 다른 전승들은 가브리엘을 최후 심판의 날에 나팔을 부는 천사로 표현한다. 🌐

Redaktion: Falko Spiller, *Die Menschen der Bibel: Ein illustriertes Lexikon der Heiligen Schrift*, 김창락 역,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중에서.



천사장 가브리엘(Gabriel)이 마리아에게 아들의 탄생을 고지한다. 판테르 베이던(R. van der Weyden)의 그림.



아이티 어린이 그림성경 반포 현장을 가다

후원회원의 정성으로 제작하여 기증한 어린이 그림성경이 아이티성서공회에 도착하였다. 아이티성서공회는 아이티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난한 지역으로 알려진 씨떼 쏘레이 지역. 이곳 어린이들에게 성경이 전달되었던 그 현장 이야기를 전한다.

아이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씨떼 쏘레이(Cité Soleil). 지금은 이전보다 평온하지만 여전히 살인과 폭력이 빈번히 일어난다. 폭력은 단순히 빈곤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도 발생한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젊은이들도 총기를 소지할 만큼 폭력과 범죄가 만연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분홍 담장 학교

높은 담장과 문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도착했다. 담장 안쪽은 어린이들의 옷과 같은 분홍빛을 띄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나이든 여성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학교의 교장인 브루넷 쉐리 헬리아 (Brunette Chéry Helias) 선생님이다. 수시로 총기가 거리에서 난사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커다란 문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담장 안쪽으로는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다. 불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의 장래에 중요하다는 것을 브루넷 교장은 잘 알기에 학교에서는 모두가 불어를 사용한다. 성경을 나누어주기 위해 각 교실을 방문하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글을 잘 읽는지 볼 수 있다. 그들의 행동도 매우 질서정연하다. 가난, 폭력 그리고 절망이 가득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곳에서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들이 배출되었다. 모두 이 학교 출신이다. 교육은 이 어린이들의 앞날을 더 밝게 만드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교장 인터뷰

브루넷 쉐리 헬리아(Brunette Chéry Helias)

이곳에서 학교를 시작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기 보단 그저 여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전에는 여기서 정말 먼 곳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곳에 왔습니다. 그 후 도시의 폭력도 심해졌고, 남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죠. 성경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정말 많이 기도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교재를 쓰고 또 지원받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지금 학교에서 쓰는 교재는 주로 선생님이 가진 성경 한 권과 포스터로 된 그림 세트뿐입니다. 아이들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갖게 되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성경을 읽어줄테고, 그럼 가족들도 복음을 듣게 되겠죠.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 주변에 폭력이 줄어들 겁니다.”

어떤 종류의 책이 필요하신가요?

“그림이 있는 성경이나 신약, 단편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며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 법도 가르칠 수 있고요.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학교와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이 학교를 나온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의사, 과학자, 교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1학년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가르침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우리 6살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준 책자를 통해 글을 바로 바로 읽습니다. 아이들의 부모 대부분이 문맹, 총기보유자 또는 폭력집단의 일원임을 생각한다면 이 결과는 엄청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 새싹들이 가득한 학교



씨메 쏘레이에서 방문한 두번째 학교는 교회를 바로 지나 길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에 방문한 학교에 비해 학교 건물은 허름하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였다. 계단에는 난간이 없어 위험해 보였고, 윗층 교실 창문은 틈이 벌어지고 유리가 없었다. 이곳 어린이들은 밝은 노란색 교복을 입고 있었다.

내부가 어둡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일부 교실에서 성경을 반포하였다. 어린이들은 새 책을 받아 매우 기뻐하였다.

아이티는 오늘도 폭력과 가난, 굶주림과 무속신앙 등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아이들이 성경을 접하고 그 말씀에 젖어 듣다면 아이티의 미래가 변화될 것이다.🌍

*기사제공: 노르웨이성서공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플로리나(루마니아, 53세)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34)

저는 10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선 제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투병 기간을 잘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루마니아는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저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큰 절망에 빠졌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작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으니 제 마음에 평화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주어진 상황을 원망



하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열고, 내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즐겨 읽습니다.

지금은 암에 걸린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연단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찍 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감사만이 넘칩니다. 🙏

2009년 루마니아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 당 182명으로, EU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루마니아 외과대학에 따르면 루마니아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유럽 평균보다 3배 높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5배 더 높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물리적 의료 지원뿐 아니라 영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루마니아 성서공회는 암 환자들이 믿음과 기도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반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는 것만큼 **힘있는 선교**는 없습니다!

신촌성결교회의 후원으로 우간다에 성경 17,122부 기증



성경을 컨테이너에 싣기 전 우간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박노훈 목사

7월 24일,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신촌성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의 후원으로 우간다에 17,122부의 성경을 기증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자연경관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약 20여 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경제발전이 늦어진 우간다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이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우간다성서공회는 교회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원하며 성경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간다성서공회 사역의 어려움을 듣고 지난 5월 신촌성결교회는 전 성도들이 다함께 성경 후원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합심하여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였던 우간다성서공회 사이먼 무카마 총무는 "제가 받는 전화의 절반,



▲ 신촌교회 성경 후원 예배에 참석한 우간다성서공회와 신촌교회 지도자들(왼쪽에서 다섯번째 부터 사이먼 피터 총무, 이정익 원로목사, 박노훈 담임목사)



◀ 컨테이너에 성경을 싣는 모습



이메일의 80% 이상이 성경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후원하시는 성경을 통해 우간다 성도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생명이 우간다 땅에 전해질 것입니다."라며 성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증예식에서 박노훈 목사는 "말씀을 보내는 것만큼 힘 있는 선교가 없고, 말씀을 전하는 만큼 귀한 섬김은 없습니다. 오늘 빛 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간다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성경을 받게 될 우간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증하는 5개 부족어로 제작된 성경은 우간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되어 이들이 말씀으로 치유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나요!

대한성서공회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를 눌러주시고 팔로잉  하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성경묵상 구절이 담긴 이미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주일마다 해외 다양한 성경보급 관련 소식과 현장 이야기들을 이미지,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벤트!

대한성서공회 Bible a Month Club 페이지에 친구들을 초대해주세요!

10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은 초대를 해주는 3분에게 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1. 대한성서공회 Bible a Month Club 페이지를 팔로우 하주세요.
2. 공유하기 옆에 있는 ... 를 클릭하시고, 친구초대를 해주세요.
3. 친구 초대한 리스트 화면을 캡처해서 bible@bskorea.or.kr 로 10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 후원회원 정보

회원명 _____
교회명 / 직분 _____
휴대전화 _____
집 전화 _____
주소 _____

☐ 우편물거부 ☐ 소식지 이메일 신청

이메일 _____

○ 후원금액

☐ 매월 _____ 원 (성경 _____ 권)
☐ 매월 10만원 (성경 20권)
☐ 매월 5만원 (성경 10권)
☐ 매월 1만원 (성경 2권)

○ 후원방법(자동이체)

은행명 _____ (후대전화번호로 된 계좌 또는 카카오페이 계좌 등록)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휴대전화(예금주) _____
생년월일(주민등록증 상)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_____

이체일 ☐ 5일 ☐ 15일 ☐ 25일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업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신청인 _____ (인/서명)

예금주 _____ (인/서명)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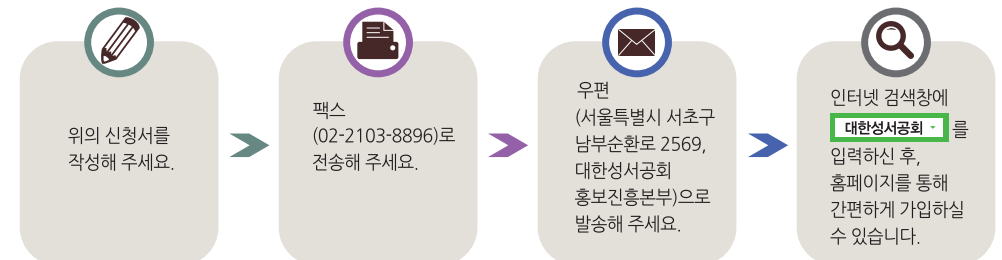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2.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나의 첫 성경을 기다립니다!

미래의 희망,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질병과 가난으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
빛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린 생명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을 선물해 주세요.

1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어린이들에게,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0명의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그림성경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